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1동에 위치한 서울북공업고등학교.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서태지(정현철)모교로도 유명한 이 학교는 서울공고와 함께 우리나라 고등학교 인쇄교육의 양대 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학교이다.

서태지 외에 북공고를 기억하게 할 만한 것은 럭비 팀이다. 2002년의 경우 대통령배와 종별선수권대회 우승팀이 바로 북공고이며,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럭비팀 중 3명이 바로 북공고 출신이다.

'67년 개교, 영상그래픽인쇄과는 '79년 인쇄과로 출발

서울북공고가 개교한 것은 지난 1964년으로 개교 당시에는 송인공업고등학교였으나 1967년에 지금의 학교명으로 개명을 하게 된다.

인쇄과의 경우는 1978년에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1979년 1개 학급 60명 정원으로 신입생을 받았다. 이후 8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60명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하던 인쇄과는 1980년대 중반이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원이 점차 줄어들다 1992년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1992년 정부가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간의 숫자를 동등한 비율로 만들겠다는 서울지역에서 공업계 고등학교가 총 13개교로 늘어난 것이다.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치러진 이 조

치로 인해 비단 서울북공고만이 아닌 대도시에 산재해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결국 인쇄과는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2년 학과 명을 인쇄사진과로 변경했고, 지난 2000년에는 영상그래픽인쇄과로 학과 명을 변경했다.

그나마 과 명을 변경한 지금은 북공고 내에서 인기(?)있는 학과로 학생 모집과정에서 미달은 면하고 있다.

성인의 나이에 접어든 22년의 역사 동안 모두 1,007명의 학생들이 인쇄과를 거쳐갔다. 북공고 인쇄과 출신들이 주로 가는 곳은 평화당인쇄(주)이다.

언제부터인가 진출한 선배들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면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평화당인쇄(주)의 경우 병역 특례업체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꿈꾸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선호도가 타 인쇄업체에 비해 앞선다.

또 북공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곳은 충무로 인근의 출력실이나 기획실이다. 이외에도 오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쇄업체 곳곳에서 다양한 북공고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다. 서울공고 인쇄사진과 최성용(1기)교사를 비롯해,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박봉길(4기)교사,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정다현(7기)교사 외에도 아현산업정보학교의 태종필(3기)교사 외에 직업전문학교에서 몇몇 분이 교편을 잡고 또 다른 인쇄인을 길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한솔프로세스의 김동원(2기)대표, 임인환(3기)대표, 메리트시스템의 이봉구(3기)대표 등이 서울북공고 인쇄과 출신이다.

인쇄사, 기획실, 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 진출

2003년 현재 1학년 35명, 2학년 32명, 3학년 26명 등 총 93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신세대이니 만



23년 역사 1천여명 배출



컴 개성도 다양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도 다양하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오프셋 인쇄 외에 컴퓨터 그래픽, 광고사진, 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 같은 학교 당국의 배려로 최근의 졸업생들은 인쇄업체 외에도 광고기획실 및 스튜디오, 컴퓨터그래픽 사무실, 웹 출판업체, 기업홍보실, 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그래픽영상실습실에는 IBM 편집 능력 배양을 위해 24대의 컴퓨터를 배치해 1인 1대 수준의 실습이 가능하다. 컴퓨터그래픽실은 맥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장이다. G3 매킨토시 24대가 비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출판 편집을 비롯해, 일러스트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촬영실습실과 오프셋인쇄실습실은 전통 인쇄과정을 위한 실습장이다. 스크린인쇄공정도 함께 실습할 수 있는데 사진제판 공정에서부터 실제 인쇄까지 전 공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일반 사진실도 갖추어져 있다. 각종 스트로보를 비롯해 사진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암실 작업도 가능하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조남우 학과장은 “최신의 시설은 아니지만 5명의 교사와 1명의 조교선생이 혼연 일체가 되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북공고 졸업생들은 하나의 공정만이 아닌 다양한 실습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뛰어난 현장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공고에서는 졸업생들의 보다 나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신구대학, 동아방송대학, 명지전문대, 인천전문대, 서일전문대, 경민전문대 등과 연계교육 계약을 통해 내신 상위 60% 학생의 경우 원하는 대학에 무시험 전형 입학이 가능하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총 14명이 연계교육 계약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했는데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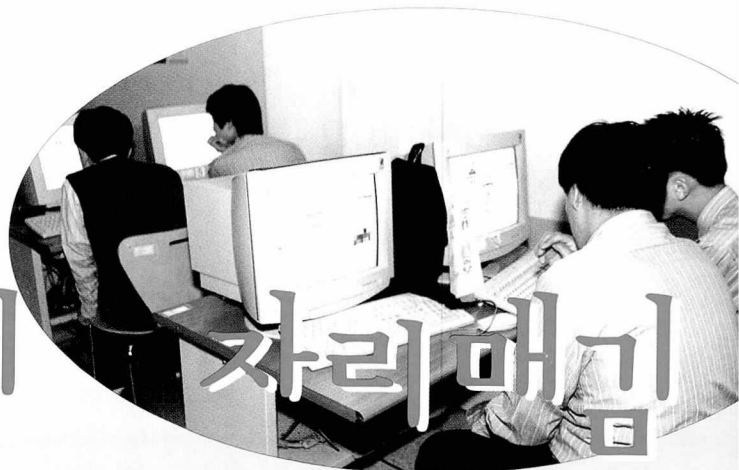
신관으로 이동 등 새로운 도약 준비

영상그래픽인쇄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그 준비 과정의 하나로 제3실습실에 위치해 있는 현재의 실습실을 신관으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중이다.

올 하반기 즈음 실시될 실습실 이전을 통해 학생들은 좀더 좋은 교육 조건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조남우 학과장은 “지금의 건물이 좀 낡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신입생 모집에도 약간의 애로가 있다. 신관으로 이동하면 좀더 좋은 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관과 제3실습실로 나뉘어져 있는 실습실이 한 동에 통합되면서 좀더 좋은 교육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관 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홍우기자〉



인쇄기술 산실

자리매김